

7일 Market Index			
↓ 코스피	↓ 코스닥		
6803.90 (-137.49)	898.43 (-21.49)		
↑ 금리 (국고채 9년)	↓ 환율 (원·달러)		
3.961 (+0.028)	1337.95 (-5.65)		

고금리 美 국채, 韓 금융시장 강타 7% 주담대·기업 부실 '총체적 난국'

올들어 국고채 금리 꾸준히 상승
4대은행 주담대금리 상단 7%선
연내 기준금리 추가인상 가능성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 한계 우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오르면서 가계부담이 커졌다.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부실 위험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기준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연 5.30%를 웃돌았다. 지난 1일에는 장중한때 연 5.34%까지 올라서며 2002년 4월 이후 2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의 누적 재정적자가 40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난 데다, 주요국의 미 국채 수요마저 약화하면서 국채금리를 끌어올리고 있어 서다. 여기에 국채유가 변동성 확대로 물가 상승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장기금리에 상승 압력을 더했다.

문제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이 국내 금융시장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금리는 이날 오전 기준 4.371%를 기록했다. 국고채금리는 1월 초 3.387→3월 초 3.511%→6월 초 4.122%→9월 초 4.378%로 꾸준히 상승했다.

채권금리 상승(채권값 하락)은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높여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은행권 대출금리 상단도 빠르게 치솟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날 기준 4.79~7.00%로 집계됐다. 대출금리 상단이 연 7%선까지 올라서면서 고금리에 따른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행 역시 연내 추가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출금리의 추가 상승 압력도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8월 금리률 0.25포인트(p) 올린 후에 점도표(Dot plot)를 통해 6개월 후 금리 전망을 내놨다. 5월 점도표에는 3.50%까지 가있지 않던 점도표가 8월 점도표에는 21개 중 6개가 3.50%에 찍혀 있었다. 시장에서는 연내 한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5@metroseoul.co.kr



metro



7일 전남광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5차 발사돼 우주로 향하고 있다. /항공우주연구원

누리호 5차 발사, 임무 성공 민관협력 '뉴스페이스' 성큼

초소형군집위성·큐브위성 15기 탑재
한화에어로, 발사체 제작·조립 주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5차 발사에 성공했다. 민관 협력 민간 주도 우주개발을 뜻하는 '뉴스페이스'에 한층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는 초소형군집위성 5기와 큐브위성 10기를 싣고 우주로 향했다. 특히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 운용에 직접 참여해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민간의 우주개발 영역이 제작에서 발사 운용으로 확대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누리호 1~3차 발사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발사체 제작과 총조립을 주관했다. 그러나 이번 4차 발사부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역할을 넘겨받았으며, 이번 이번 5차 발사 운용에 참여하는 비율은 허용 범위 75% 이상으로 알려졌다.

특히 발사 현장에서도 민간의 역할이 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인력 23명이 발사통제센터(LCC) 콘솔 22개 가운데

20개에 참여했고, 이 중 18명이 콘솔을 직접 운용했다. 임무지휘센터와 발사대, 발사체 이송 안전 인력까지 포함하면 총 42명이 발사 운용에 참여했다. 이밖에 약 300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해 발사체에 필요한 부품과 기술을 공급했다.

발사체 제작과 운용뿐 아니라 발사 인프라와 위성에도 민간 기술이 투입됐다. HD현대중공업은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의 설계·제작부터 운용을 맡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누리호 총조립과 1단 추진체 제작, 엔진 클러스터링 조립 등을 수행했다. 주담대위성인 초소형군집위성에는 LG 계열사의 카메라 모듈과 배터리팩, 파워 모듈, 자세제어 구동기, 위성통신 안테나 등도 활용됐다.

앞으로 우주개발 전반에서 민간의 역할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내년 6차 발사부터 발사통제센터 콘솔 대부분을 운영하고, 전남 순천에 구축될 자체 제작시설에서 발사체 각 단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생산 체계를 확대한다.

/조민선 기자 msjo@



metro

社告



메트로경제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역노화' 세상에 없던 혁신기술 조명

메트로경제와 메트로신문이 오는 10월 21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6 제약바이오포럼'을 개최합니다.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시장은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를 차세대 핵심 성장 축으로 설정하고 빠른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계 첫 역노화 유전자 치료 임상 진입부터 비만·대사 질환 약물의 노화 지연 적응증 확장, mRNA 세포 재프로그래밍, 자기줄기세포 재생의료에 이르기까지 연구 분야가 급격히 다각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혁신 기술은 단순한 신약 개발을 넘어 바이오 뷰티,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예방 의학, 맞춤형 웰니스 영역으로 빠르게 접목되며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역노화 기술은 지속 노화를 넘어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가장 뜨거운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치료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K-제약·바이오의 차세대 혁신 기술을 집중 조명합니다.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국내외 첨단 바이오 기술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항노화·역노화연구개발(R&D) 및 기술 상용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번 포럼에 독자 여러분과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행사명 : 2026 제약바이오포럼
- 주제 :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
- 일시 : 2026년 10월 21일(수) 오후 2~5시
- 장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18
-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metro[®]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 100조 시대 연다

오늘 3분기 잠정실적 발표
매출 200조, 영업이익 105조 예상
AI 수요·HBM 출하 확대, 실적 견인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 고지를 넘어설 전망이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대역폭메모리(HBM) 출하확대까지 더해지면서 실적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8일 올해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이 200조원 안팎, 영업이익은 105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전망에 부합할 경우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새로 쓰게 된다. 3분기 영업이익만으로도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43조 6000억원의 두 배를 웃도는 규모다.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도 250조원을 넘어서면서 연간 영업이익 300조원 달성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실적 상승세는 반도체 사업이 주도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뉴시스

전망이다. 스마트폰과 가전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이 전사 이익을 견인하는 구조다. 시장에서는 3분기 DS부문의 영업이익률이 70% 중반대에 달하고 메모리 사업의 경우 80%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 상승 또한 수익성 개선을 뒷받침하고 있다.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빠르게 늘어난 반면 공급 확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범용 메모리까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2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정부, 마다가스카르 등 인도양 도서국과 해양·식량안보 협력
- ▲與 “누리호 5차 발사 성공, 우주개발 역량 한 단계 더 도약 증명”



- ▲오세훈, 민선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서 **정부 비판**
/사진 뉴시스
- ▲추경호 시장 100일…“더 나은 대구 만드는데 역량 집중”

- ▲여야, 통일부 국감서 北 지뢰 매설 책임 추궁 한 목소리 촉구
- ▲송미령 “농지조사 중국산 드론, 이번엔 알아… 예산 문제”